



# 광주시체육회 자생력 커진다

## 내년부터 월드컵·무등경기장 관리 사업 다각화 통해 새 수익 창출 기대

광주시체육회가 2009년부터 월드컵경기장과 무등경기장 관리를 맡게 됨에 따라 사업다각화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17일 광주시와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광주시에서 관리해오던 월드컵경기장과 무등경기장을 광주시체육회가 통합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시체육회는 기존의 상임부회장·사무처장 산하 기획·총무팀, 경기부, 시설관리팀의 3개 실무부서에서 경기부와

시설관리부가 신설되고, 기획·총무팀, 경기팀, 무등경기장관리팀, 월드컵경기장 관리팀, 영주체육관 관리팀 등 5개 부서로 규모가 확대 개편된다.

광주시체육회는 두 시설을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현재 운영인력을 48명에서 32명으로 16명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인건비와 시설비 등 10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체육회는 월드컵경기장과 무등경기장 운영을 통한 새로운 수익을 창

출, 선수육성과 스카우트 등 체육회 고유 목적사업에 활기를 띄게 됐다.

또 실업팀이 없어 타 시·도도 우수선수가 유출되는 광주의 열악한 체육여건을 개선되고 체육인들의 직간접 진출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06년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할 때 3억 3천500만원의 적자를 냈던 영주종합체육관을 2007년에 맡아 1억 7천 9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우수한 운영능력을 입증했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광주시체육회가 두 시설을 관리하게 돼 자생력 강화를 통한 사업다각화로 수익이 늘어나게 됐다”며 “그동안 실업팀이 없어 우수한 인체의 타시·도 유출이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체계적 선수육성과 우수선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조코비치 “내가 테니스 왕”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가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 차중스타디움에서 열린 ATP 마스터스컵대회 단식 결승에서 니콜라이 피리코프(러시아)를 2-0(6-1, 7-5)으로 꺾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연경 2cm 더 커 192cm 女 프로배구 최장신



여자프로배구 최고의 공격수 김연경(20·흥국생명·사진)의 키가 비시즌 기간 더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시즌까지 신장이 190cm로 기록됐던 김연경은 오는 22일 개막하는 2008~2009시즌 정규리그를 앞두고 팀에서 벌인 신체검사 결과 지난 시즌보다 2cm가 더 자란 것으로 측정됐다.

김연경의 현재 신장인 192cm는 역대 한국 여자배구 선수 가운데 가장 큰 키다. 그전까지는 김세영(KT&G)과 양효진(현대건설)이 나란히 190cm로 김연경과 함께 최장신 선수였다.

올해 신인레프트에서 192cm의 큰 키로 주목을 받은 김지애(포스코청암)는 운동화를 벗고 맨 발에서는 190cm로 측정돼 김연경의 키는 독보적이다.

한일전산여고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키가 170cm에 미치지 못해 공격수보다는 리베로로 많이 뛰었던 김연경은 뒤늦게 키가 크면서 덕을 본 사례다. /연합뉴스

## 올 시즌 막 내린 한국남자프로골프

# 절대 강자 없는 ‘춘추전국시대’

‘공동 다승왕이 다섯명’ 2008 한국프로골프(KPGA) 시즌이 16일 NH농협 KPGA선수권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19개 대회가 치러진 한국프로골프는 양적 성장은 두드러졌지만 질적 성장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투어를 지배하는 절대 강자가 없어 ‘도토리 키재기’ 또는 ‘우승컵 나눠먹기’가 이제의 한국프로골프의 고질병이 됐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올해 19개 대회에서 탄생한 챔피언은 무려 14명. 두차례 우승한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 황인준(34·토마토저축은행), 배상문(22·켈러웨이), 최경주(38·나이키골프), 그리고 앤드류 매켄지(호주) 등 다섯명이 공동 다승왕에 올랐다.

미국 남녀 프로골프가 타이기 우즈와 로레나 오초아라는 결출한 1인자를 앞세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도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의 신들린 샷이 인기 불이의 발판이 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다고 뚜렷한 라이벌 구도가 전개된 것도 아니다. 지난 시즌에는 ‘괴물 신

## 공동 다승왕 무려 5명 ‘우승컵 나눠먹기’ 비판도 힘·기술 앞선 20대 주류

인’ 김경태(22·신한은행)와 ‘승부사’ 강경남(25·삼화저축은행)이 펼쳤던 경쟁으로 프로골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지만 올해는 그나마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김형성과 황인준의 상금왕 각축전이 배상문의 한국오픈 우승으로 심하게 막을 내리버렸다.

아쉬운 것은 충분히 절대 강자에 올 수 있었던 김형성의 뒷심 부족. 김형성은 12차례 톱10에 진입했고 평균 타수 1위(71.1타), 그린 작중률 1위(69.7%), 평균 퍼트수 4위(1.8개)에 오르기도 2승에 그쳤다.

준우승만 내차례 차지한 성적표를 보더라도 일단 우승 기회가 오면 톱10을 얻어지는 강한 정신력이 아쉬웠다.

상금왕에 오른 배상문이 미국 진출 준비 때문에 시즌 막판 4개 대회를 빠진 것

도 투어가 맥이 풀린 원인이 됐다. 배상문 등 젊은 선수들이 해외 진출을 노리느라 국내 대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은 앞으로 한국프로골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등장했다.

그래도 한국프로골프는 연중 쉴 틈없이 대회를 개최하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투어에 버금가는 여럿한 투어의 모습을 갖췄다. 2004년 8개 대회였던 한국프로골프는 2005년 16개, 2006년 18개, 작년 17개에 이어 올해 19개 대회가 열려 실전 경험이 풍부해진 선수들의 경기력도 덩달아 향상됐다.

힘과 기술에서 앞서는 20대 선수들이 투어의 주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작년과 다를 바 없었다.

투어 대회 우승자 14명 가운데 30대 선수는 황인준, 최호성(35), 김형태(32·테일러메이드) 등 3명 뿐이고 40대 선수는 강욱순(42·안양베네트) 혼자였다.

강욱순이 부활의 노래를 읽고 잊혀져 가던 ‘신동’ 김대식(27·삼화저축은행)도 재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며 권위중(27·삼화저축은행), 강경술(21·김안과병원), 최호성은 무명 탈출을 선언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 이지영·장정·이미나·유선영 5위...美 스탠퍼드 우승

### LPGA 오초아인비테이셔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뛰어들 지 8년째인 안젤라 스탠퍼드(미국·사진)가 때늦은 전성기를 활짝 열어 줬다.

스탠퍼드는 17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함께 13언더파 275타로 정상에 올랐다.

브리타니 랭(미국)은 1언더파 65타를



몰아쳐 소렌스탐과 함께 공동2위에 올랐다. 역전 우승에 도전했던 ‘코리언 시스터스’는 공동5위(8언더파 280타)에 이지영(23·하이마트), 장정(28·기업은행), 이미나(27·KTF), 유선영(22·휴온스) 등 네명이 이름을 올린데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 표도르 ‘무패신화’ 깨졌다 불가리아 선수에 판정패

‘얼음 황제’ 표도르 에멜리아노코(32·러시아)의 무패 신화가 8년 만에 깨졌다.

표도르는 1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블레이니체육관에서 열린 2008 세계검도 선수권대회 나폴레옹 이바노프 블라고이(22·불가리아)와 100kg급 준결승에서 판정 결과 5-8로 패했다. 이로써 표도르의 세계선수권대회 5연패 달성 무산됐다.

2000년 검도대회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표도르는 첫째 러시아검도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뒤 그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세계선수권대회 네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삼보 마스터’란 호칭을 부여받았다.

표도르의 아성을 무너뜨린 블라고이는 직업군인으로 키는 183cm로 표도르와 같지만 나이는 10살 아래다. /연합뉴스



18일(화)  
▲08/09 프로농구 <삼성 : 동부> (18 : 50)  
SBS스포츠·XSPORTS·MBC ESPN

## 수완지구

### 분 월드메디컬센터 양

#### 지하1층, 지상5층

- ▶ 수완지구 최고 중심상권
- ▶ 일일교통량 최대 승강장 옆
- ▶ 병·의원 입점 최적위치
- ▶ 수완지구 최고위치
- ▶ 경쟁력 있는 최저분양가격 (선점의 기회)
- ▶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환영
- ▶ 2009년 3월 준공

-현장을 방문하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치에 반하고 가격에 놀라는 그곳  
월드메디컬센터  
☎ 062) 952-1033, 010-7723-1033

## 금당부동산

☎ (062)223-7400 헬프라인 016-632-5659  
(총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인터시티나도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 공시가·감평가 70%이하

- 군산 고척비치 63년 도로변 단지 266건 평 367 44년 15억에 매입했음 8998원
- 농성동 200평 공시 9억2천 매도56억천
- 입종가정 공시 1억7천 매도 1억2천
- 백운동 로터리 모빌과 단원주택 단지 1건 평 294 대출1억5천 고시원격할 391천
- 대인동 광우은행건물 건너 단지 51평 4층 건물 156평 공시 7억 매도 1억9천
- 우산동건물 4층 96평 대입 4억7천 2002년 1억 외원이나 특실실 혁할 매도 3억
- 신안동 4차선도로변 상점 93평 공시 3억 2천 칸타르동 2억3천 매도 2억9천
- 남구 송아동 보조빌딩 8850(22256)㎡/보도 6천 공시 2억2천 매도 1억2천
- 사동 단지 467㎡(141평) 건물 170 평상가 7억 6500 평과 빌딩 1년 3억5천
- 한평동 레노빌 영일중학교에서 20분 단지 233 건평 382 평 99억5천 매도 6억2천
- 관산구 우산동 단지 86 건평 24 전세 4000만원 월 402만원 담보 4억2천 매도 5억5천
- 백운동 외곽도로 단지 162 건평 229 평의 사옥 등 복합 건물 7억7천 매도 4억9천
- 관산구 안국동 단지 2217㎡(671평) 건물 71평 공시 2억 매도 3억2천

### 감평가이하

- 대인동 단지 100 건평 367 노래방·PC방·음용·투표 주택 45평 앞마당 8평
- 충남동 단지 94 건평 287 여간이 고시원이나 월급생활자 26개 공시 4억3천 매도 6억2천
- 학동 대문동 주유소 단지 348 건평 191 대출5억 공시 11억5천 현금여 필요하고 교환가능 1억

### 부자

- 충효동 과수원 575평 전원생활격 2억
- 두인동 나대지 83평 공시 7억 매도 1억

### 승점동 나대지 1085㎡(320평)창고, 다세대 등 복합 평당 65만원(2억2천)

- 나주시 산포면 신재리 임야 2860평 국유지 487평도 사용 권, 별장, 전원주택 3억2천
- 동구 소래동 2차선도로 439평 공장, 창고, 부지 시설을 직접 대출 1억9천 매도 2억3천
- 지산동 무등산 호텔 가깝 부근 강남 388 평 사립, 복지시설 가드 등 복합 1억9천
- 시골주택 환산 뉴타운 소재지 땅 101평 주택은 수리해야 할 매도 1900만원

### 매도·교환

- 사당동영양인 주택 금남로 57 대지 48 건 72 공시 2억 2억 매도 2억9천
- 안국동 소재지 바스도로 은주거리 266평 건물과 교환가능 5억2천
- 영광 전원주택지 곡성읍 사거리 광주에서 20분 단지 483평 사내용건과 교환가능 6천만원
- 금남로 57 단지 34평 23층은 노래방 4층은 주택 2.34층은 공용실 교환가능 4억
- 송정리 아파트 단지 3층 50평 복합 대문동중 복합 1억4천 매도 1억5천
- 누문동 모빌 단지 103 객실 32 대출 5억 전세 1억 2천 월 500 송기 지을 땅과 교환 994천
- 미림동 공구상가 1층과 2층 25평 분양 2억 1600만원에 교환 원할 대출 500
- 화순읍 수반의 무등산 자락 1800평 절전주택 6평장 1억4800

### 월동·아파트부지·아파트·주택

- 상기 1억 원용 복합 주택의 부지 158평 공시 2억 2950 매도 3억
- 영동 123평 공시 3억2천 매도 2억8500
- 서동 143평 공시 2억 매도 1억6500
- 오비트 윤원동 무등 1차 3층 56평 1억5천

### 급매·주월동 6층건물

- 대지 158 건평 372 대출 8억5천 전세 38은 전세 4월이 40 임대료 10억엔

## WLB 웰빙공인중개사

양산택지지구내 GS자이1차 단지내상가 ☎ 062)575-8389 헬프라인 010-4667-7749

### 임대신속→매출임대료

- 양산택지지구내 4차선 도로옆 자이아파트 등산로 입구
- 1층: 165㎡ (750평), 178㎡ (754평)
- 관장: 식당, 판매, 체인점, 스포츠용품, 전시장, 레스토랑
- 2층: 178㎡ (754평), 285㎡ (788평)
- 관장: 학원(보습,댄스,무용,강좌), 사무실, 교회

### 매매/임대 고수익과 안정성 보장

- 양산GS 그린/자이 “단지내상가”

면적	매매가	임대수익률	비고
50㎡ (구 15평)	1억7천	연 14.5%	현 체인점
73㎡ (구 22평)	2억3천	연 13.0%	협 미용실
94㎡ (구 28평)	2억9천	연 12.0%	현대 드
46㎡ (구 14평)	1억5천5백	연 13.0%	현대 세탁소

### ※ 임대협의

1. 최소투자금액(저리용지승계,보증금 포함)
2. 임대사업투자(연13% 이상 고수익)
3. 빠른 투자금 회수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수록 고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임점완료된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 양산택지지구내 상가/대지 전문상담 ○

## 다우공인중개사

☎ 523-8114 헬프라인 011-603-1308  
(용봉지구 현대3차 사거리)

### ▶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360㎡/건841㎡(지상4층)/12m도로변 코너/용5억6천만/보2억3천 월795만원/매가 12억7천만

### ▶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437㎡/건870㎡(지상4층)/15m도로변 코너/용6억2천만/매가 13억5천

### ▶ 최고급 무인텔(직영)

- 대2,057㎡/건2,248㎡/각실28/용15억/매가 28억원

### ▶ 태양광발전소 및 전원주택지

- 임28,200㎡/1,000KW 발전사업허가/매가 3억5천만

### ▶ 창고부지 및 전원주택지

- 임14,109㎡(주거지역 8,870/그린벨트5,239)/현재 김나무 밭/매가 8억5천만

저희 사무소는 전속중개 의뢰한 물건만 취급합니다.

## 대인동삼일부동산

☎ (대)223-1140, 5210 헬프라인 011-602-2532  
(관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